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 기억에 있는 사실이 영원히 묻혀 버릴 수도 있고, 묻혀 버렸던 사실이 햇빛을 봐서 영원히 사람들 기억속에 조각되는 수도 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애국지사 이익영 선생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분의 본관은 덕수요, 자는 공익, 아호는 송강이시다.

서기 1899년 5월 15일 아산군 신창면 황산리에서 태어나셨다.

이순신 장군의 13대 자손이며 4남중 3남으로 황산리에서 한학과 신학문을 하셨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굳고 충무공의 정신을 이어받아 젊었을 때에도 많은 훌륭한 일을 하셨다. 3.1운동에 참가했으며 계속 독립운동을 하셨다. 신흥무관학교를 나오고 중앙낙양군과 학교를 졸업한 후 간도의 청산리 싸움에서 김좌진, 이청천 장군들과 같이 활약하시다가 해방 후 국내지도 참모장을 지내고 제주도 병사주 사령관으로 계시다가 6.25동란 때 실종되셨다. 나라에서 그 분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분의 태어나신 곳에 단비를 세웠다. 그곳에 그분의 유가족되시는 분이 사신다기에 찾아 갔다. 그분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이익영 선생의 유족되시는 분은, 그분의 작은 아버지라는 것이었다. 그분의 성함은 이종회씨였다. 그분도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훌륭한 일을 한 분들을 지척에 두고도 몰랐다니 부끄러운 일이다. 세월은 가도 그날 나라사랑의 총과 의와 성의로써 살다 가신 거래의 사표요 귀감인 애국지사들의 정신은 오늘도 이 고장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